

설립 초기 전환국(典圜局)의 운영 실태, 1883-1892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조교수, 경제학 전공
cho06@aks.ac.kr

- I. 머리말
- II. 조직과 인원
- III. 위치
- IV. 주조 상황
- V. 기계 도입
- VI. 운영의 구체상
- VII. 맺음말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1-327-B00151), 2013년 11월 29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된 현대한국학연구센터·한국사회사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근대적 합리성의 역사적 형성과 식민성/탈식민성”에서 발표된 바 있다. 발표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서호철 선생님, 약정 토론을 맡아 유용한 조언을 해주신 김윤희 선생님,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 논문의 개선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한다.

I. 머리말

한국경제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기업’은 민간 주도가 아닌 국영 또는 관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기국(機器局), 전환국(典圖局), 박문국(博文局), 직조국(織造局), 조지국(造紙局), 광무국(鑛務局), 권연국(捲烟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이해는 정부 주도의 ‘근대’ 공업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바 있지만, 주로 『통서일기(統署日記)』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¹⁾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언제 어떤 기관이 설립되어 언제까지 운영되었고, 주로 어떤 인물이 참여하였는지 정도만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회사’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나 국영이나 관영의 조직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고²⁾, 이에 각 기관이 남긴 원자료(raw data)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방식의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르지 못했다.

이는 1880년대 들어서 추진된 ‘식산흥업’ 정책의 추진 결과로서 건설된 ‘근대’ 공업에 대한 실증적 재평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시도된 바 없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여러 기관 중에서 전환국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환국은 다른 기관에 비해 원자료의 현존 상황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연대기에서도 풍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원자료뿐만 아니라 연대기에 대한 면밀한 서베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환국을 과연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까지 시도해보고자 한다.

전환국은 1883년에 설립되어 1904년에 폐지된 조폐기관이다.³⁾ 관영(官營)의 주전소(鑄錢所)로서 전환국을 설립한 최초의 목적은 당오전(當五錢)을 대량으로 주조하여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전환국은 그 설립에서 폐지까지 약 20여 년 동안 ‘전환국’→‘경성전환국’→‘인천전환국’→‘용산전환국’으로의 이설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

1) 趙璣濬, 『韓國企業家史(重版)』(博英社, 1973, 1983).

2) 全遇容, 『19世紀末-20世紀初 韓人 會社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 吳斗煥, 『韓國近代貨幣史』(韓國研究院, 1991), 66-68쪽, 253쪽.

4) 尹錫範·洪性讓·禹大亨·金東昱, 『韓國近代金融史研究』(世經社, 1996), 42쪽; 元裕漢, 「「典圖局」攷」, 『歷史學報』 제37호(1968), 50-58쪽.



주: 전환국의 시기별 별칭은 후대의 회고담 또는 기존 연구에서 편의상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따옴표 처리하여 별칭을 활용한다.

그림1-위치를 기준으로 한 전환국의 시기 구분 및 별칭

화폐를 주조하는 곳이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인해, 전환국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화폐금융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환국이라는 기관 자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개론적 수준에서 전환국을 언급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전환국의 연혁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환국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경우에도⁶⁾ 그 인용자료가 대체로 『고종실록(高宗實錄)』과 같은 연대기(年代記)의 일부 아니면 구전(口傳)⁷⁾ 등으로서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⁸⁾, 코가 요시마사(甲賀宜政)가 1914년에 쓴 「근세조선 화폐 및 전환국의 연혁」⁹⁾에 주로 의존하였다.¹⁰⁾ 그 외에 추가로 활용된 자료로는 시카다 히로시(四方博) 소장의 『전환국주조총부(典園局鑄造總簿)』¹¹⁾나 미카미 유타카(三上豊)의 『전환국회고담(典園局回顧談)』¹²⁾ 정도가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동안 화폐금융사 차원에서 진행된 전환국에 대한 연구는 코가의 글을 반복적으로 재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李碩崙, 『우리나라 貨幣金融史: 1910년 이전』(博英社, 1994), 233-245쪽, 317-329쪽, 382-389쪽, 399-406쪽.

6) 위의 책.

7) 柳子厚, 『朝鮮貨幣考』(學藝社, 1940).

8) 화폐금융사 연구에서 전환국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지 못한 이유는, 당오전이나 백동화 같은 화폐의 주조량(鑄造量), 즉 통화량 대리변수(proxy)의 통계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환국 자체의 기능이나 운영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9) 甲賀宜政, 「近世朝鮮貨幣及典園局の沿革」, 『朝鮮總督府月報』 제4권 제12호(1914), 9-38쪽.

10) 趙璣濬, 앞의 책(1983), 65-76쪽; 高鳴雅明,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研究』(大原新生社, 1978).

11) 金洸鎭, 「李朝末期における朝鮮の貨幣問題」, 『普專學會論集』 제1호(1934), 283-348쪽.

12) 三上豊, 『典園局回顧談』(朝鮮經濟研究所座談會, 1932).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인용된 바 있다. 元裕漢, 앞의 논문(1968), 49-100쪽; 吳斗煥, 앞의 책.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전환국과 대한천일은행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만이 차별화된 연구 성과를 낳은 바 있다.¹³⁾ 이들 연구는 대한천일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전환국 및 왕실의 경제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자극하였고¹⁴⁾, 최근에는 대한제국 시기에 전환국이 생산한 문서를 추가로 활용하여 전환국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해가 진전된 바 있다.¹⁵⁾ 하지만 전환국의 초기 모습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의존하였던 코가나 미카미의 회고 기록은 ‘인천전환국’이나 ‘용산전환국’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전달해주는 반면, 설립 초기의 전환국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자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 및 인용자료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은 자료의 추가 확보를 통해 설립 초기의 전환국에 관한 정보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II. 조직과 인원

설립 초기의 전환국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었는지, 구체적인 인원 구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만 알려져 있다. 그래서 관리(管理)가 전환국의 으뜸벼슬이라고 하거나¹⁶⁾ 총판(總辦)이 으뜸벼슬이고, 후에 관리로 고쳤다고 설명하는¹⁷⁾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전환국에 관련된 인사(人事) 기록이 『고종실록(高宗實錄)』 등의 문헌에 수많이 나타나 있음이 인지되었으나¹⁸⁾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이나 『일성록』 또는 『승정원일기』와 같은 기초적인 연대기를 면밀하게 조사하면 전환국의 조직과 인원에

13) 金允禧, 『대한제국기 서울지역 금융시장의 변동과 상업발전 -대한천일은행 및 대자본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2002);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역사비평사, 2007).

14)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산하,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도서출판 해남, 2005).

15) 李榮薰, 「大韓帝國期 皇室財政의 기초와 성격」, 『경제사학』 제51호(2011), 3-29쪽.

16) 李碩崙, 앞의 책, 235쪽.

17) 위의 책, 238쪽.

18) 위의 책, 244쪽.

표1-설립 당시(1883) 전환국의 조직과 인원

직책	성명	인원
관리사무(管理事務)	민태호(閔台鎬)	1
총판(總辦)	이중철(李重七)	1
방판(幫辦)	안정옥(安鼎玉), 권용철(權用哲)	2
위원(委員)	이응준(李應浚), 이병훈(李秉勳), 송헌빈(宋憲斌), 윤명선(尹明善)	4
사사(司事)	김두환(金斗煥), 신태금(申泰競), 유정수(柳正秀), 정항조(鄭恒朝)	4

출처: 『고종실록』, 『일성록』.

접근할 수 있다.

1883년 7월에 임명된 최초의 인원을 정리한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설립 당시 전환국의 조직 구성은 관리사무(管理事務), 총판, 방판(幫辦), 위원(委員), 사사(司事)의 순으로 되어 있었다. 관리사무 민태호는 좌찬성(左贊成), 총판 이중철은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 방판 안정옥은 관성장(管城將), 권용철은 첨지(僉知)였다.¹⁹⁾ 위원 이응준은 상호군(上護軍), 이병훈은 훈련판관(訓練判官), 송헌빈은 기기국 위원(機器局委員), 윤명선은 진사(進士)였고, 사사 김두환은 사용(司勇), 신태금은 진사(進士), 유정수와 정항조는 유학(幼學)이었다.²⁰⁾

이들의 전직(前職)이나 직역(職役)으로 미루어볼 때, 전환국의 조폐 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들이 배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원 송헌빈의 전직이 기기국 위원이기는 했지만, 그가 기기국의 위원으로 임명된 된 것도 불과 2개월 전의 일이었다.²¹⁾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여타의 관청과 마찬가지로 일반 관리직으로서 부임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문직(specialist)이 아니라 일반직(generalist)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1에 정리된 관리사무 이하 총 10명의 인원과 완전히 동일한 명단이 1883년 12월 29일자 《한성순보(漢城旬報)》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²²⁾, 설립 초기의 전환국은 최소 6개월 이상 이들 10명의 인원만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듬해가 되자 인원의 변동이 발생했다(표2). 특히 김옥균과의 논쟁을 거치며 당오전의 발행을

19)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3년 7월 13일.

20) 『일성록』 1883년 7월 26일.

21) 『일성록』 1883년 5월 25일.

22) 송헌빈이 ‘宋憲彬’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이하의 명단에서 자료에 따라 달리 확인되는 인명의 동음이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는다.

표2-1884년 전한국 조직의 인원 변동

직책	성명
관리사무	김영수(金永壽, 11-)
총판	뮐렌도르프(穆麟德, 2-), 이조연(李祖淵, 3-), 안정옥(安鼎玉, 11-)
방관	남정식(南廷植, 2-), 안정옥(安鼎玉, 4-11), 권용철(權用哲, 10-), 이응준(李應浚, 12-)
위원	서상회(徐相晦, 3-윤5), 이면상(李冕相, 윤5-), 이인금(李寅莚, 6), 이응준(李應浚, -12)
사사	이우영(李遇永, 3-)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임명된 달을 가리킴.

출처: 『고종실록』, 『일성록』.

관철하고 신식화폐의 주전 계획을 제출한 바 있는 독일인 뮐렌도르프(Möllendorf)가 전환국의 총판에 임명된 것이 눈에 띈다. 또 1883년 12월까지도 전환국의 방관으로 파악되었던 안정옥이 이듬해 4월에 다시 방관으로 임명되면서 동시에 기기국의 방관까지 겸임하게 된 것은²³⁾ 그가 1-3월 중에 일시적으로는 전환국에서 직책을 맡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11월에는 총판으로 승진하고 있다. 방관 권용철 역시 1883년의 명단에 있었는데 표2에서는 10월에 다시 임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의 업무를 보다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대기에는 전환국의 인원 변동에 대한 이유가 짚막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1884년에 김영수가 11월부터 전환국의 관리사무에 임명된 이유는 그 자리가 공석이였기 때문이다.²⁴⁾ 또 위원 서상회가 윤5월에 영릉 참봉(寧陵參奉) 이면상과 서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신병(身病)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⁵⁾

이렇게 연대기에서 추출한 임면 기록을 통해서 언제 어떤 인물이 전환국의 어떤 직책에 임명되고 면직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대략적으로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지는 않아서 임명이나 면직 중의 어느 한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면의 기록을 통해 인원 변동의 대체적 상황을 알 수는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전체 인원을 복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1884년

23)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4년 4월 12일. 관리사무, 총판, 방관 등 고위 직책의 경우, 전환국의 업무만 전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직책을 겸임한 경우가 많았다.

24) 『일성록』 1884년 11월 4일.

25) 『일성록』 1884년 윤5월 17일.

표3-전환국의 당오전 신주(新鑄) 및 행용에 따른 포상

직책	성명	포상 내역	인원
관리사무	민태호	숙마(熟馬) 1필을 면급(面給)	1
총판	뮐렌도르프, 이조연, 이중철(전총판)	반숙마(半熟馬) 1필씩을 사급(賜給)	2
방판	안정옥	가자(加資)	3
	권용철	영장(營將)의 이력(履歷)을 허용(許用)	
위원	남정식	수령(守令)으로 대소(待窠)하여 우선 의입(擬入)	6
	이병훈	수령으로 대소하여 의입	
사사	이응준	승륙(陞六)	5
	송헌빈, 윤명선, 서상희, 이면상		
	김두환, 신태극, 유정수, 정항조, 이우영	모두 판하(判下)에 따라 시상	
	통령(統領), 현령(顯領), 문감(門監), 패장(牌將), 원역(員役), 공장(工匠)		

출처: 『고종실록』, 『일성록』.

6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체 인원이 확인된다. 당오전을 새로 주조하여 행용(行用)하게 된 것을 치하하며 관련자 전원에게 표3과 같이 시상한 바 있기 때문이다.²⁶⁾

표3을 통해 당시 전환국의 조직에 관해 세 가지 정도의 사실을 더 알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늘었다는 점이다. 관리사무는 1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총판은 1명에서 2명으로, 방판은 2명에서 3명으로, 위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사사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이에 전체 인원이 8명에서 18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음이 확인된다. 둘째, 시상 내역을 통해 판단컨대, 관리사무 이하 사사 이상의 직책은 수령이나 그 이상까지 승진하며 순환하는 일반직(generalist)이었다. 이는 이들이 조폐를 담당하는 전환국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직책을 부여받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셋째, 그와는 반대로 사사(司事) 아래의 직책으로서 실제의 주전과정에 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여섯 가지가 확인된다. 바로 통령(統領), 현령(顯領), 문감(門監), 패장(牌將),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이 그것이다. 이들 직책의 실체는 무엇이였을까?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사주(私鑄)를 행한 장인(匠人)을 편수(邊首·片手)라 했다는 설명 정도가 있는데²⁷⁾, 편수가 화폐의 주조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전문 수공업자(工

26)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4년 6월 27일.

27) 吳斗煥, 앞의 책, 69쪽.

표4-1885년 전한국 조직의 인원 변동

직책	성명
관리사무	심이택(沈履澤, 6-)
총판	민영환(閔泳煥, 8-), 뮐렌도르프(穆麟德, -9)
방판	구덕희(具德喜, 9-), 권용철(權用哲, 9-)
위원	윤명선(尹明善, 3-), 이면상(李冕相, 3-), 안용호(安用鎬, 3-), 이우영(李遇永, 3-), 민주호(閔周鎬, 5-10), 김문현(金文鉉, 10-), 김학우(金鶴羽, 10-)
사사	정항조(鄭恒朝, 3-), 신태궁(申泰兢, 3-), 조석보(趙錫普, 3-), 유정수(柳正秀, 3-), 송헌규(宋憲珪, 3-), 왕제응(王濟膺, 4-), 윤정식(尹正植, 5-10), 박현양(朴顯陽, 6-), 민풍식(閔豐植, 8-), 민주호(閔周鎬, 10-), 윤기(尹錡, 10-), 방한철(方漢七, ?)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임명된 달을 가리킴.
출처: 『고종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匠) 일반에게 부여되었던 명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여섯 가지 직책 중에서 ‘공장(工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 공장은 전한국의 조폐창에 해당하는 공장(工場) 내에서 주전(鑄錢)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다기보다는 공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전소 어딘가에서 면허에 의거하여 사주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뒤에서 보충한다.

표1, 표2 및 표3을 연결해볼 때 확인되는 부수적인 정보도 있다. 우선 김영수가 관리사무로 임명되기 전에 그 자리가 공석이었다고 했는데, 최소한 6월까지의 민태호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표1과 표2를 통해 1883년 연말까지 명단에 있던 권용철이 1884년 10월에 다시 임명되었다고 하였는데, 표3은 그가 6월에도 전한국의 방판으로 활약하고 있었음을 전해준다. 그리고 표1과 표2에서 방판으로 활약하다 총판으로 승진한 안정옥이 있었는데, 표3에서는 그가 총판으로 승진하기 전에 가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85년에도 인원의 변동은 계속되었다. 표4에 따르면, 심이택이 관리사무로, 민영환이 총판으로 임명되고, 뮐렌도르프는 총판에서 면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리사무나 총판과 달리, 방판은 대체로 앞서 살펴본 안정옥의 경우와 같이 순환 근무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885년 9월에 임명된 구덕희는 기기국의 방판이었고, 권용철 역시 전한국의 전 방판으로서 다시 방판으로 임명되고 있다.²⁸⁾

또한 표4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 위원이나 사사의 변동이 훨씬 많았음

표5-1886년 전한국 조직의 인원 변동

직책	성명
관리사무	김영수(金永壽, -7), 민영익(閔泳翊, 7-)
총판	민영환(閔泳煥, -1), 정낙용(鄭洛鎔, 1-), 안정옥(安鼎玉, -7)
방판	
위원	정두현(鄭斗鉉, 5-), 민형식(閔馨植, 6-), 윤금주(尹肯柱, 7-), 성익영(成翊永, 8-), 이명우(李明宇, 9-10), 강태승(姜泰承, 10-), 김양묵(金良默, 11-), 이원로(李源老, 11-)
사사	정우달(鄭禹達, 6-), 이동화(李同和, 7-), 이선택(李選植, 8-)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임면된 달을 가리킴.

출처: 『고종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이 관찰된다. 업무가 너무 많고 번잡해서 위원과 사사를 한 사람씩 더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²⁹⁾ 대체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의 자리를 옮겨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규 임용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충원하기 위하여 북학(北學)의 학도(學徒)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5세부터 25세까지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고, 이는 기기국(機器局)이나 제중원(濟衆院) 등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³⁰⁾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1886년에는 민영익이 관리사무에, 정낙용이 총판에 임명되었는데, 둘 다 공석이었던 때문이다.³¹⁾ 안정옥은 7월에 총판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봉산군수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³²⁾ 이후에는 전한국의 임면 기록에서 안정옥이 보이지 않는다.

표6부터 표10까지는 나머지 연도의 인원 변동을 정리한 것이다. 1887년과 1888년, 그리고 1891년에 위원의 신규 임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³³⁾ 1889년과 1890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인원의 변동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관리사무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지만 총판이나 방판은

28) 『일성록』 1885년 9월 6일.

29) 『승정원일기』 1885년 5월 8일.

30)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5년 6월 26일.

31)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6년 1월 28일, 7월 5일.

32) 『일성록』 1886년 7월 20일.

33) 표6이나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위원과 사사의 경우, 각처의 주전소를 전담한 인원은 별도로 임명하였다. 元裕漢, 「「當五錢」攷」, 『歷史學報』 제35·36호(1967), 320-321쪽에서는 이를 “鑄錢事業을 該地方官廳에 一任하지 않고 典園局委員을 咨請하여 同事業을 직접 管理·監督케 했다는 점이 從來 地方官廳에서 設行했던 鑄錢事業과는 性格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표6-1887년 전한국 조직의 인원 변동

직책	성명
관리사무	
총판	
방판	이근용(李根潯, 11-)
위원	김학우(金鶴羽, 1-2), 정원영(鄭元永, 2-7), 강태승(姜泰承, -2), 이원로(李源老, -3), 이민항(李敏恒, 3-6), 성익영(成翊永, -4), 곽치년(郭致年, 4-11), 현명운(玄明運, -4), 이용식(李龍植, 4-), 유찬*(劉燦, 4-), 하도일*(河道一, 4-), 김신묵*(金信默, 4-), 오학선*(吳學善, 4-), 황도원*(黃道源, 4-), 이풍영*(李豐榮, 4-), 현명운*(玄明運, 4-윤4), 안필주*(安弼柱, 4-), 이용식*(李龍植, 윤4-), 김양묵(金良默, -6), 이교철(李教哲, 6-), 이하영(李夏榮, 8-8), 이근수(李根洙, 9-9), 김현문(金賢文, 9-9), 권용국(權用國, 9-), 정문기(鄭汶基, 9-10), 최한영(崔漢英, 10-), 윤형대(尹亨大, 10-), 이선직(李選植, 11-), 이경인(李景寅, 12-)
사사	윤기(尹錡, -1), 임승학(林承學, 1-), 강태승(姜泰承, 8-), 조석진(趙錫晉, -10), 심익국(沈宜國, 10-), 이행일(李行一, 11-), 최한영(崔漢英, -12), 이용일(李容駟, 12-)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임면된 달을 가리킴. * 창원 마산포의 주전소에 파견된 위원.
출처: 『고종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표7-1888년 전한국 조직의 인원 변동

직책	성명
관리사무	
총판	정낙용(鄭洛鎔, -1)
방판	송헌빈(宋憲斌, 8-12), 왕제응(王濟膺, 12-)
위원	황도원(黃道源, -1), 홍성렴*(洪成濂, 1-10), 오경연*(吳慶然, 2-10), 오영렬*(吳永烈, 2-10), 김상묵*(金相默, 2-10), 이익순(李益淳, 5-6), 곽치화(郭致華, 6-), 이지용(李志容, 6-), 전양묵(全良默, -6), 김학우(金鶴羽, -6), 홍현택(洪賢澤, 8-9), 김홍익(金鴻翼, 10-10), 안정수(安鼎壽, 10-10), 김승현(金升鉉, 10-10), 박연덕(朴淵德, 10-11), 이하영(李夏榮, -11), 이규진(李圭鎭, 11-), 황기중(黃履鍾, 11-11), 이종빈(李鍾彬, 11-11), 이사억(李思億, 11-12), 권교선(權敎善, 12-), 하도일(河道一, -10), 유찬(劉燦, -10), 이용식(李龍植, -10), 이풍영(李豐榮, -10), 김신묵(金信默, -10), 안필주(安弼柱, -10), 오학선(吳學善, -10)
사사	이용일(李容駟, -1), 이경인(李景寅, -2), 김제현(金濟顯, 2-2), 이의담(李宜昞, 2-), 송헌빈(宋憲斌, -7), 이규석(李圭錫, 7-8), 임승학(林承學, -9), 이규방(李奎邦, 9-), 왕제응(王濟膺, -12), 구의조(具懿祖, 12-)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임면된 달을 가리킴. * 만리창 주전소에 파견된 위원.
출처: 『고종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표8-1889년 전한국 조직의 인원 변동

직책	성명
관리사무	
총판	정낙용(鄭洛鎔, -3), 박제순(朴齊純, 3-9), 이종건(李鍾健, 9-)
방판	이근용(李根潑, -12)
위원	전양묵(全良默, -5), 이용상(李容相, 5-11), 윤형대(尹亨大, -5), 홍순영(洪淳英, 5-11), 이규진(李圭鎭, -6), 이충구(李忠求, 6-11), 장사훈(張思勳, 6-), 채경묵(蔡慶默, 11-), 민영순(閔泳純, 11-)
사사	이규방(李奎邦) → 이규용(李奎用)
?	사과 김택남(金澤南) → 김제남(金濟南) 부사과 이능하(李能夏) → 이광하(李匡夏) 강태승(姜泰承, -6), 임보영(林輔永, 6-9), 안경수(安駟壽, 9-)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임면된 달을 가리킴. 화살표는 개명(改名)을 뜻함.
출처: 『고종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표9-1890년 전한국 조직의 인원 변동

직책	성명
관리사무	
총판	
방판	안경수(安駟壽, 10-)
위원	조난주(趙蘭柱, 11-), 이재경(李在瓊, 11-), 변승학(邊昇學, 11-), 전효순(全孝舜, 11-), 정기찬(鄭基燦, 11-)
사사	조중식(趙重軾, 10-), 김양한(金良漢, 11-)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임면된 달을 가리킴.
출처: 『일성록』, 『승정원일기』.

표10-1891년 전한국 조직의 인원 변동

직책	성명
관리사무	
총판	이종건(李鍾健, 2-11), 이완용(李完用, 11-)
방판	민영순(閔泳純, 1-)
위원	이민철(李敏哲, -1), 김병숙(金炳塾, 1-), 심성택(沈聖澤, 1-), 김도준(金道濬, 2-), 최익서(崔翼瑞, 2-), 장정선(張貞善, 2-), 오희순(吳熙淳, 2-), 안방현(安邦賢, 2-), 민병하(閔丙河, 2-), 이승칠(李承七, 3-3), 안희량(安熙良, 6-), 이귀범(李龜範, 7-), 이찬호(李鑾鎬, 7-), 정해주(鄭海周, 7-), 최헌식(崔憲植, 9-), 장사훈(張思勳, -9)
사사	추백엽(秋伯燁, 1-), 이규용(李奎用, -1), 박준기(朴準基, 1-), 이건홍(李建弘, 1-), 구의조(具懿祖, 3-), 김수학(金秀學, 8-), 송창로(宋昌老, 8-), 강태현(康台鉉, 10-)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임면된 달을 가리킴.
출처: 『일성록』, 『승정원일기』.

표11- 교환국 신설 후의 전환국 직제

전환국 관원 (典圖局官員)	태환본서 관원 (兌換本署官員)	인천태환서 관원 (仁川兌換署官員)	부산 및 각 태환서 관원 (釜山及各兌換署官員)
관리(管理) 1	관리* 1	방판* 1	서장(署長) 각 1
총판(總辦) 1	총판* 1		
방판(幫辦) 1	회판(會辦) 1 방판* 1		
장무(掌務) 1	장무 1	장무* 1	회계 각 1
기술(技術) 1	회계(會計) 1	회계 1	서기 각 2
서기(書記) 1	서기 4	서기 4	

주: * 각각 전환국 총판, 방판, 장무가 겸임함.
출처: 『전환국직제』.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예컨대 1889년 3월 24일에는 총판의 공석에 박제순을 임명했다.³⁴⁾ 각 연도의 인원 변동에 대한 해설은 뒤에서 다시 상세히 논한다. 단, 1891년에 교환국(교환서)을 신설하면서 개편한 전환국의 직제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전환국직제(典圖局職制)』를 통해 확인된다(표11).

III. 위치

그렇다면 이들 인물이 소속되었던 전환국은 어디에 있었을까? 1883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을 당시의 전환국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일관되게 유자후(柳子厚)의 『조선화폐고(朝鮮貨幣考)』를 인용 또는 재인용하고 있다.³⁵⁾ 하지만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면 의문점이 적지 않다.

전환국은 고종 20년(癸未, 1883)에 설치되었는데, 그 창초(創初)에는 따로 관아의 건축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창덕궁 좌측으로 올라가는 원동(苑洞) 모처의 대가(大家)를 임시로 이용하여 전환국 임시 사무소로 하고, 관리(管理)로는 당시 고종의 인척인 민영익이었고, 총판에는 정낙용이었으며, 주사에는 김학우이었으나, 이들은 실지(實地)에 기계니 신화(新貨) 제도에는 소매(素味)하므로 목참관(穆參判)이 총판으로 자기

34) 『일성록』 1889년 3월 24일.

35) 吳斗煥, 앞의 책, 68쪽; 李碩崙, 앞의 책, 235쪽; 도면회, 「개항기의 신식 화폐」, 『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두산동아, 2006), 111쪽.

나라 독일인인 페나와 페 돌스를 초옹(招擁)하여 시험의(試驗依)와 기계의(機械依)로 삼아 전환국 사무를 개장(開張)하게 되니 원동 구 장소는 협착(狹窄)하여 도리가 없으므로 현 남대문, 즉 승례문 서측 지대(현금 남대문 소학 부근이라 한다)에 이국(移局) 사무(視務)하였는데……³⁶⁾

설립 당시에 창덕궁 왼편에 있는 원동의 어떤 큰집을 임시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당시의 관리나 총판 등으로 그보다 3-5년 정도 뒤인 1886-1888년 중에 재직하였던 민영익, 정낙용, 김학우 등을 거론하고 있다.³⁷⁾ 또한 목참관이라고 하는 뮐렌도르프가 총판으로 재직한 연도는 1884-1885년이므로³⁸⁾, 서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유자후보다 이른 시기에 회고 기록을 남긴 코가나 미카미는 이 시기의 전환국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전환국이 이국(移局)되었다고 한 위치를 확인해보면 의문이 더욱 커진다. 유자후는 앞의 인용문에서 남대문의 서쪽 지대로 옮겨 갔다고 하면서, 당시의 남대문소학교 부근이라 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따로 인용한³⁹⁾ 『경성부사(京城府史)』를 직접 확인해보면, “20년(메이지 16) 2월에는 현 남대문 소학교 부지의 북방에 처음으로 상설 주전소인 전환국을 설치”하였다고 했다.⁴⁰⁾ 여기서 “20년(메이지 16)”은 고종 20년으로서 1883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성부사』의 다른 지면에서는 “개국 494년(메이지 18) 남대문 안쪽 현 남대문공립심상소학교(南大門公立尋常小學校)의 북방에 있는 조선총독부 관사(官舍)의 땅에 처음으로 전환국을 신축하였다”고 하면서⁴¹⁾ “이때 민영익은 관리, 정낙용은 총판이 되어 같은 해 2월 기공(起工), 익년 11월 낙성(落成)”하였다고 적고 있다.⁴²⁾ “개국 494년”은 1885년이므로, 1885년 2월에 착공하여 1886년 11월에 완공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민영익과 정낙용의 재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886-1888년이었으므로 서술이 엄밀하지는 않다. 또한 같은 자료를 인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전환국 신축공사를 1885년 2월에 시작하여

36) 柳子厚, 앞의 책, 528쪽.

37) 표4-표7 참조.

38) 표2-표4 참조.

39) 李碩崙, 앞의 책, 240쪽.

40) 京城府, 『京城府史(第1卷)』(京城府, 1934), 525쪽.

41) 京城府, 『京城府史(第2卷)』(京城府, 1936), 1011쪽.

42) 위의 책, 1012쪽.

11월에는 준공을 보게 되었다”고 하거나⁴³⁾, “2년 후인 1887년(고종 24) 10월에 그의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하여⁴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미카미는 “메이지 18년(1885)경에 경성전환국이 지금의 태평정(太平町) 관사(官舍)가 있는 곳에 건축되었는데”라는 불완전한 서술을 한 바 있다.⁴⁵⁾

이와 관련하여 연대기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기존 연구에서 “1885년(고종 22) 8월에 선혜청(宣惠廳) 별창(別倉) 자리에 새로운 전환국 건물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인용하고 있듯이⁴⁶⁾, 선혜청의 별창을 전환국의 조폐(造幣) 기기창(機器廠)으로 하게 했다.⁴⁷⁾ 10월 28일에는 전환국의 조폐창 목역소(木役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북창고 24칸 및 기자재가 소실되었다.⁴⁸⁾ 이듬해 5월에는 전환국을 기기창에 합설하고, 기존의 전환국 건물은 별영(別營)으로 이속하게 하였다.⁴⁹⁾ 9월 1일에 전환국에서 조폐창의 건축이 끝났다고 보고하였고⁵⁰⁾, 그리고 나서 전환국의 조폐창 건물이 기기국의 기기창과 함께 완공되는 시점은 1887년 10월 29일이었다.⁵¹⁾ 이는 “해를 넘겨 수고한” 일로 인정되었다.⁵²⁾

이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전환국의 위치를 비정(比定)할 수도 있지만, 추정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조 상황과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전환국에서 주전을 활발히 행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을 바꾸어 설립 초기 전환국에서의 주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43) 吳斗煥, 앞의 책, 72쪽.

44) 李碩崙, 앞의 책, 239-240쪽.

45) 三上豊, 앞의 책, 9쪽.

46) 李碩崙, 앞의 책, 238쪽.

47) 『고종실록』 1885년 8월 17일. “典園局造幣機器廠以惠廳別倉爲之.”; 『일성록』 1885년 8월 17일. “典園局造幣機器廠以惠廳別倉爲之事分付.”

48) 『승정원일기』 1885년 10월 28일.

49) 『고종실록』 1886년 5월 22일. “命典園局合設於機器倉其官廳移屬別營.”; 『일성록』 1886년 5월 22일. “命典園局合設於機器倉前典園局移屬別營口教也.”

50) 『승정원일기』 1887년 9월 11일.

51)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7년 10월 29일. “典園局造幣廠機器局機器廠今既告竣.”

52) 『승정원일기』 1887년 10월 29일.

IV. 주조 상황

전환국의 설립이 당오전 주조를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당오전이 주조되기 시작한 것은 전환국의 설립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였다. 이미 6개월 전부터 금위영(禁衛營)과 만리창(萬里倉)에서 당오전의 주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⁵³⁾, 강화(江華)나 의주(義州) 등지에서도 당오전의 주조가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⁵⁴⁾ 그러므로 전환국의 설치는 당오전의 주조를 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량 주조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⁵⁵⁾

전환국에서 최초로 주조를 개시한 것은 1883년 7월 18일이었다.⁵⁶⁾ 전환국이 설치되고 나서도 평양, 강화, 의주 등 주요 주전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악화를 대량으로 사주(私鑄)하는 현상이 나타났고⁵⁷⁾, 이에 전환국 이외의 다른 주조소(鑄所)에서는 엽전(葉錢)만 만들고 당오전은 오직 전환국에서만 만들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⁵⁸⁾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에는 서울 및 지방의 모든 주조소를 폐지하고 전환국만 상설 주조소로 지정하게 된다.⁵⁹⁾ 하지만 이듬해인 1884년에도 전환국 이외의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사주를 행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었다.⁶⁰⁾

전환국의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서 일부에서는 전환국의 폐지가 건의되기도 했다.⁶¹⁾ 하지만 전환국은 그대로 운영되었고, 새로 주조한 당오전이 행용(行用)되기에 이른다.⁶²⁾ 전환국에서 주조한 양이 많지 않아서 사주나 위조가 횡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⁶³⁾ 새롭게 당오전을 행용한 것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음은 표3에서 살펴본

53) 『고종실록』 1883년 2월 21일; 吳斗煥, 앞의 책, 66-67쪽.

54) 吳斗煥, 앞의 책, 67쪽.

55)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3년 7월 5일.

56) 『승정원일기』 1883년 7월 17일.

57) 吳斗煥, 앞의 책, 68-69쪽.

58) 『일성록』 1883년 10월 18일. 元裕漢, 「『典園局』攷」, 『歷史學報』 제37호(1968), 54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전환국이 “국내 유일의 常設 造幣機關으로서 貨幣 鑄造事業의 「센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59) 『일성록』 1883년 12월 21일.

60) 『일성록』 1884년 6월 6일.

61) 『고종실록』 1884년 5월 9일.

62) 『일성록』 1884년 6월 2일; 『일성록』 1884년 6월 6일.

63) 吳斗煥, 앞의 책, 71쪽.

바와 같다.

그런데 1885년에 새로운 전환국의 준공이 이루어졌다고 본 연구에서는 “1885년 신축된 경성전환국은 [...] 1888년까지는 달리 사용된 적이 없”다거나 “신식 주전소로서의 전환국은 1888년까지는 당오전 주조와 커다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당오전 주조사업이 “1888년 조금씩 재개되기 시작”하여 “1889년, 1890년까지 성세(盛勢)를 보이게 되”었다고 보았다.⁶⁴⁾ 하지만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 새로운 전환국의 준공이 1885년이 아니라 1886년 또는 1887년이었다면 1888년에 들어서 주조가 재개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겨졌을 것이며, 그간 주조가 부족했던 상황을 “몇 년에 걸친 당오전 주조의 억제”로 표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앞의 표6에서 1887년에 전환국에서 위원을 대거 임명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위원을 많이 임명하게 된 것은 영남에서 구리(銅)가 많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4월부터 당오전을 창원의 마산포에서 주조하게 하였기 때문이다.⁶⁵⁾ 이를 전관하기 위해 4월 19일에 차출하여 보낸 위원만으로도 유찬·하도일·김신묵·오학선·황도원·이풍영·현명운·안필주 등 8명에 이르렀고,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동역(董役)이었다.⁶⁶⁾ 바로 앞 달에 창원의 설주소(設鑄所)의 동역으로 내려 보낸 이용식을 포함하면 모두 9명이다.⁶⁷⁾ 그러므로 마산포에서의 “주조량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한 것은⁶⁸⁾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경성전환국이 건축되는 동안 화급하게 필요한 당오전의 주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주조하게 하는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더 그럴싸하다.⁶⁹⁾ 같은 시기에 만리창(萬里倉)에서 당오전을 주조하게 하고 전환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것⁷⁰⁾도 마찬가지로 이유였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전환국의 신축이 완료되는 것은 1887년

64) 위의 책, 72-73쪽.

65)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7년 4월 18일.

66) 『일성록』 1887년 4월 19일.

67) 『일성록』 1887년 윤4월 14일.

68) 吳斗煥, 앞의 책, 73쪽.

69) 李碩崙, 앞의 책, 244쪽.

70) 『승정원일기』 1887년 4월 18일; 『승정원일기』 1887년 4월 19일.

표12- '경성전환국 직원' 명단

직책		성명
관리(管理)		민영익(閔泳翊)
총판(總辦)		정낙용(鄭洛鎔): 후영사 겸임(後營使兼任)
주사(主事)		김학우(金鶴羽) 외 2인
사사(司事)		3인: 이들은 공업에 종사한 자이지만 당시에 적당한 기술(技手)는 없었음
독일인 (獨逸人)	총판	크라우스(F. Kraus)
	시험방 (試驗方)	리트(C. Riedt)
	기계방 (機械方)	디트리히트(O. Diedricht)
일본인 (日本人)	조각방* (彫刻方)	이나가와 히코타로(稻川彦太郎, 休職 造幣局 7等 技手) 이케다 타카모리(池田隆雄, 休職 造幣局 9等 技手)
	기관방 (機關方)	이타니 카츠미(三谷克三)
	직공(職工)	23인

주: * 이 두 사람은 메이지 20년(1887) 12월부터 메이지 22년(1889) 1월까지 근무했음.

출처: 甲賀宜政, 『近世朝鮮貨幣及典圖局の沿革』, 『朝鮮總督府月報』 제4권 제12호(1914), 13쪽; 京城府, 『京城府史(第2卷)』(京城府, 1936), 1012쪽.

10월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총판 정낙용을 가자(加資)하고, 기타 관계자에게도 시상을 하기 위해 명단을 제출하게 했던 것이다.⁷¹⁾ 그렇다면 코가의 회고 기록에 제시되어 있는 '경성전환국 직원' 명단(표12)은 1887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표4부터 표7까지의 인원 변동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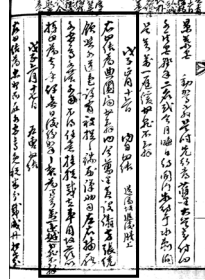
코가나 미카미 등 일본인의 회고 기록에 의하면⁷²⁾ 이국(移局) 이전의 전환국을 이국 이후의 전환국과 구분 짓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국 이전의 전환국 경영은 조선 정부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종의 면허세를 납부한 자가 주조의 권한을 획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국 이후의 전환국 시기에는 정부가 직접 경영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둘째는 기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국 이전의 전환국에서는 흙으로 만든 주형(鑄型)에 쇳물을 붓는 방식, 즉 주성법(鑄成法)으로 주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국 이후의 전환국에서는 독일에서

71)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7년 10월 29일; 李碩崙, 앞의 책, 240쪽.

72) 甲賀宜政, 앞의 논문, 9-38쪽; 三上豊, 앞의 책.

자료1-『용동궁등록』에 베껴 쓴, 1888년 1월 16일의 내수사 감결

戊子正月十六日 內司甘結 遺漏故追後膳上
 右甘結爲典圍局甘辭內今萬里倉設鑄方張統
 領與各匠色設有被捉之端刑漢兩司左右捕廳
 各宮房各營各司不得任意推捉載在事目故茲以
 捧甘爲去乎俾無日後紛拏之弊爲有矣萬一違越甘罪不辭



출처: 『용동궁등록(龍洞宮謄錄)』 제4책.

도입한 기계를 활용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전환국을 “근대적 조폐시설을 갖춘 한국 최초의 근대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⁷³⁾ 기계뿐 아니라 인력까지 독일과 일본에서 들여온 것은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런데 1888년부터 재개되었다고 하는 당오전의 주전이 이국 이후의 전환국, 즉 조폐창 또는 기기창에 해당하는 ‘공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표7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위원은 공장이 아닌 만리창(萬里倉)에서의 주전을 감독하기 위해 임명된 자들이었다. 1888년 1월 29일에 홍성림을 만리창의 주역감동(鑄役監董)으로 임명하였고⁷⁴⁾, 2월 10일부터 주조가 시작되었다.⁷⁵⁾ 2월 21일에 위원으로 임명된 오경연, 오영렬, 김상묵 역시 만리창에서의 주전에 대한 감동을 맡았다.⁷⁶⁾

만리창에서의 주전이 1888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용동궁등록(龍洞宮謄錄)』에 옮겨 적어둔 내수사의 「감결(甘結)」에서도 확인된다(자료1). 전환국의 「감결」에 따라 이번에 만리창에서 주전을 하게 되었고, 통령(統領)이나 장색(匠色)을 임의로 피착(被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앞서 표3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통령이니 장색이니 하는 직책이 등장한다. 이렇게 직책의 명칭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표12의 ‘직공(職工)’과 달리 이들이 주전한 방식이 신식 기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래의 방식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코가의 회고 기록에서는 1888년경에 용산 만리창에 황동 당오전의 주전소가 있었고, 동 1,500근과 인원 600명을 가지고 주야로 하루에

73) 吳斗煥, 앞의 책, 72쪽.
 74) 『일성록』 1888년 1월 29일.
 75) 『승정원일기』 1888년 2월 10일.
 76) 『일성록』 1888년 2월 21일.

800관문을 주조하였다고 했다. 특히 주조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1일당 면허세금이 일정하였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주야로 일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⁷⁷⁾ 그렇게 만리창에서 새로 주조한 동전이 행용되기 시작한 것은 1888년 7월 3일부터였다.⁷⁸⁾ 하지만 만리창에서 주조한 동전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었다.⁷⁹⁾ 그래서 1888년 8월 26일에는 한 곳에서만 주전을 하도록 하지는 의견이 제출되었고⁸⁰⁾, 만리창의 고주소(鼓鑄所)는 혁파되었다.⁸¹⁾

그런데 미카미는 같은 시기에 대해 다른 회고담을 전하고 있다. 1888년에 1엔(円) 은화 1,300여 매(枚), 10문(文), 5문의 적동화 약 4,000엔 정도를 주조했는데, 이는 모두 건본 화폐에 해당하고 발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⁸²⁾ 그렇다면 같은 시기의 ‘공장’에서는 신식 화폐의 시주를, 만리창에서는 당오전의 주조를 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1889년부터는 전환국의 공장(漢城西門外 國家錢局)에서도 밤낮으로 당오전을 주조하였지만, 근대식 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³⁾ 그래서인지 당오전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했다. 10월 7일에 전 교리 임원상이 올린 상소에서 전환국에서 주조한 것이 쉽게 파쇄된다는 내용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만리창에서 주조한 것이 쉽게 파쇄된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조 기법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전 주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국(典圖局)에서 초기에 주조한 것은 꽤 강하여 쓸 만하였으나, 요즘에 만들어진 것은 너무 얇아서 물에 들어가도 잠기지도 않고 손만 닿으면 부서지며 명목적인 가치는 엽전의 5배에 해당하지만 실제 가치는 엽전과 동일하니 물가가 치솟고 백성들이 곤궁한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신의 견해로는 지금에 와서 혁파하는 것에 대하여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지만, 이제부터 엽전 한 푼 가치의 돈으로 사용하되 엽전을 더 주조해서 통용한다면, 설사 폐단 위에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명목적 가치만 있고 실제 가치가 없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⁸⁴⁾

77) 甲賀直政, 앞의 논문, 10쪽.

78) 『일성록』 1888년 7월 3일.

79) 『일성록』 1888년 7월 19일.

80)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88년 8월 26일.

81) 『승정원일기』 1888년 10월 12일.

82) 三上豊, 앞의 책, 12쪽.

83) 吳斗煥, 앞의 책, 75쪽.

앞서 창원의 미산포에서 구리를 확보하고자 한 사례처럼 동전의 재료를 확보하는 것은 당오전의 주조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1890년의 동순태(同順泰) 서간(書簡)에 따르면, 손윤필(孫允弼)이라는 수입상이 당오전의 재료인 구리를 전환국에 납품하고 있었다고 하며, 그 구리는 주로 담결생(譚傑生) 등의 중국 상인이 일본이나 홍콩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손윤필은 전환국으로부터 구리의 납품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⁸⁵⁾ 이는 일본이나 홍콩의 구리가 중국 상인 및 내지 상인을 통해 인천항을 경유하여 경성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동전의 원료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조선 정부에게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1890년 12월 19일에 전환국의 주전소를 평양에 분설하려 했던 것이며, 명목상의 이유 역시 평안도 지역에서 구리와 납(鉛)을 가져다 쓰고자 하는 데 운반이 어렵다는 점을 내걸었다.⁸⁶⁾

그런데 이후 평안도에서 발행된 것은 질이 나쁜 당오전이었고, 나중에는 당일전이지만 소위 평양전(平壤錢)이라 했던 악화가 대거 발행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1891년 11월 5일에 전환국으로 하여금 신식 화폐에 해당하는 은화와 동화를 계속 주조하게 하고, 이를 엽전 및 당오전과 함께 장애 없이 통용하게 하기 위해 교환국(交換局)을 설치하였다.⁸⁷⁾ 11월 16일에는 이완용(李完用)을 전환국 총관 및 교환서(交換署) 총관에, 오오미와 초우베(大三輪長兵衛)를 교환서 회관(會辦)에 임명했다.⁸⁸⁾ 하지만 신식 화폐의 발행은 전환국이 인천으로 옮겨진 1892년에서야 가능했다.

84) 『고종실록』 1889년 10월 7일.

85) 石川亮太, 「開港期 中國人商人의 活動과 情報媒體: 同順泰書簡資料를 중심으로」, 『奎章閣』 제33호(2008), 191쪽.

86)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90년 12월 19일.

87)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91년 11월 5일.

88) 『고종실록』 및 『일성록』 1891년 11월 16일. 앞에서 소개한 장서각 소장의 『전환국적 제』라는 문건에서 인찰된 용지는 오사카의 스즈키에 의해 제작된 것이고(大阪鈴木製), 관심에는 오오미와 용지(大三輪用紙)라고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V. 기계 도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국 이후의 전환국이 이전의 전환국과 차별화 되는 점은 신식 기계를 도입하였다는 데 있다. 신식 기계는 압인(壓印)의 방식으로 화폐를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구래의 주성법(鑄成法)과 차별화 된다. 하지만 그 기계는 시주(試鑄)에만 사용되었을 뿐 거의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어떤 기계가 도입되었던 것일까? 기존 연구에서는 코가의 회고 기록을 인용하여 압인기를 비롯한 12종의 기계가 전환국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⁸⁹⁾ 그런데 “경성전환국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린 조폐 기기는 인천전환국에서 다시 활용되었”다는 점⁹⁰⁾에 착안한다면, 이국 이후의 전환국이 갖추고 있었던 기계의 실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전환국’에 대한 조사를 담은 1901년의 「전환국조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3은 12종의 기계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설비가 ‘경성전환국’ 단계에서부터 갖추어져 있었고, 압인기(극인기) 대수의 차이 외에는 ‘경성전환국’에서 사용했던 기계의 대부분이 그대로 ‘인천전환국’으로 옮겨져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전환국조사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기관, 굴뚝 및 급수의 일(汽罐烟突及給水の事)’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기관(汽罐)이나 기관(機關) 및 기계는 외관상 손상이 없을 정도로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관(汽罐)은 ‘랭커셔’형 1개, 철제의 기관(機關) 및 기타 기계는 경성전환국으로부터 옮겨 온 것이요 이미 10여 년 전에 제조한 것이나, 사용하기는 오래지 않은 까닭으로 지나치게 상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렇지만 다만 외양만 보고 짐작한 것이니, 그 실상을 자세히 알지 못하며, 이들 중요한 물건은 충분히 주의하여 검사하였으나,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그 내면을 검사할 길이 없으니, 이후 혹시 정밀하게 검사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같은 자료의 ‘칭량기의 일(秤量器의事)’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듯이 저울은 오래 사용하여 그대로 쓰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89) 李碩崙, 앞의 책, 239쪽.

90) 崔虎鎮, 『韓國貨幣小史』(瑞文堂, 1972), 174쪽.

표13- '경성전환국'과 '인천전환국'의 기계 비교

'경성전환국'	'인천전환국'
압인기(壓印機) 3대(臺)	극인기(極印機) 9좌(坐): 활차 부착(滑車付着)
신연기(伸延機) 2대	기관(汽罐) 1개(個): 부속물 일체(付屬物一切)*
압사기(壓寫機)* 1대**	기관(機關) 1개: 동(同)**
선반(旋盤) 2대	녹로반(轉轆盤) 3좌: 동, 그 외 2대는 구무중(求買中)
절단기(截斷機) 2대**	수도즉통(水導筒) 1개
천공기(穿孔機) 1대	급수즉통(給水筒) 2개: 목제 1개, 철제 1개
압연기(壓緣機) 3대	온수기(溫水器) 1개
자동칭량기(自働秤量機) 1대**	원지석(圓砥石) 1좌
마기계(磨機械) 1대**	만력(萬力) 4개: 2개 구무중
압차기(壓車機) 1대**	대칭량기(大秤量機) 1좌: 병분(并分) 등
기기(汽機)** 1대**	대칭(臺秤) 1좌: 동
기관(汽罐)** 1개(箇)**	차축(車軸) 4개: 장형(長形)
	축수(軸受) 약간(若干)
	불안화폐절단기(不完貨幣截斷機) 1좌
	극인연마기(極印研磨器) 1좌**
	극인압사기(極印壓寫器) 1좌**
	원형마기(圓形磨器) 2좌
	노(爐) 1개
	수칭(手秤) 12개
	양취자(洋吹子) 1개
	추유기(錘揉器) 1좌
	삭평기(削平器) 1좌
	[이상은 전환국 때 있던 것(已上典圖局時在)]
	[이상은 경성전환국 때 있던 것(已上京城典圖局時在)]
	위 기계는 고정자본에 속함.

주: * 나사프레스(スクリュプレス), 나사의 직경(捻子の徑) 6인치(吋)

** 8공칭마력, 직경 9인치, 행정(衝程) 1피트(呎) 2인치

*** 랭커셔형(ランカシャー形), ※ 양쪽에서 서로 대응되는 것

출처: 甲賀宜政, 『近世朝鮮貨幣及典圖局の沿革』, 『朝鮮總督府月報』 제4권 제12호(1914), 10-11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4권, 八, 雜, (18) 典圖局調査報告書.

인천전환국(該局)에서 방금 사용하는바 대칭량기(大秤量機)는 1좌만 있는데, 동경(東京)에서 제조하여 항상 각 조폐국(造幣局)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폐소에서 칭량기가 극히 긴요하여 추호도 차이가 없어야 쓸 수 있을 것인데, 인천전환국에서 소유한 칭량기는 제작이 완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오래 사용하며

표14- '인천전환국'에서 추가로 비치한 물품

서안(書案) 4좌	부(斧) 1개
의자(椅子) 12좌	감과(柑槁) 30개
호봉(戶棚) 2좌	취자(吹子) 1개
화폐함(貨幣函)	사(筴) 1개
동대(同袋) 80건(件)	사(篩) 1개
칭량과(秤量鍋) 2좌	극인(極印)
화폐조사기(貨幣調查器) 20개(個)	발(鉢) 2개
동포기(同包器) 12개	시계(時計) 4좌
수통(木桶) 3개	거(車) 1대(臺)
유차(油差) 6개	산반(算盤) 10개
화두(火斗) 17개	난로(暖爐) 6좌
추(鎚) 15개: 대소(大小)	탕부(湯釜) 3좌
노(鑪) 10본(本)	화로(火爐) 1좌
화저(火著) 1개(箇)	안경(眼鏡) 4개
착(鑿) 4개	양등(洋燈) 5개
포(鉤) 1개	나선형(螺旋型) 1쌍(雙)
거(鉤) 1개	나사
소도(小刀) 2구(口)	연거(鏈車) 2개
척도(尺度) 2개: 권척(卷尺), 절척(折尺)	함(函)

이상은 당국 비치물(當局備置物)

출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권, 八, 雜, (18) 典圖局調查報告書.

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작이 불완전하여 차이가 7돈(錢) 5푼(分重)이 있고, 인천전환국에 비치할 때 대칭량기 1좌만 있고 표준 저울이 없으므로, 분말동(粉末銅)도 그것이 적당하지 아닌지 검사할 수 없으며, 그 저울로 수출(輸出)과 수입(輸入)을 모두 측정하므로 이해(利害)는 없을 듯하나, 화폐의 경중(輕重)을 계량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하고, …….

또한 표14를 통해 기계류를 제외하면 '인천전환국'에서 새로 비치하여 사용한 물품이 거의 모두 비품(備品)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천전환국'에서의 주전을 사실상 가능하게 한 기계류는 이미 '경성전환국' 단계에서 완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외국에서 도입하여 완비한 근대적 기계는 2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건축된 '경성전환국' 기기창의 근대적 건물 속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 건물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인용하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⁹¹⁾

91) 李碩崙, 앞의 책, 240쪽.

공장은 벽돌로 만든(煉瓦造) 세 동(棟)으로 되어 있었다. 기관실(汽罐室) 1동, 지금실(地金室), 조각소(彫刻所), 칭량소(秤量所) 1동, 용해(鎔解), 신연(伸延), 극인(極印), 분석(分析)의 각 공장 1동으로서, 각실(各室)은 벽으로 막았고, 또 굴뚝(煙突)의 높이는 60피트였다.⁹²⁾

신축한 60피트 높이의 굴뚝은 남대문과 높이를 겨루어, 세 동의 벽돌로 만든 공장과 더불어 당시 적막했던 성내에 하나의 이채를 발했다.⁹³⁾

VI. 운영의 구체상

그렇다면 신식 기계를 방치해둔 전환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당시의 전환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연대기나 회고 기록이 전해주는 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전환국과 관련하여 작성된 원본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전환국 상관(典圖局償款)』(奎 26589)이라는 문서이다. 영국 차관을 갚아 나간 내역을 적은 자료로서, 1889년 말의 잔액 8,757파운드 13실링 1펜스와⁹⁴⁾ 그에 붙은 이자를 1890년 2월부터 6월까지 상환한 실태를 보여준다. 표15를 통해 1890년 상반기 약 반년간에 걸쳐 전년도 잔액의 약 4분의 1을 갚은 것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이 차관이 1885년에 2만 파운드 규모로 행해졌던 것인 데다가 조폐 기기의 구매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고려한다면⁹⁵⁾, 여전히 원본의 3분의 1 정도가 미상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에서 도입한 기계의 구매 대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신정왕후(神貞王后), 즉 조대비(趙大妃)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890년 8월 3일에 발인(發引)을 위한 차비관(差備官)을 마련하면서 전환국의 관원들도 음관(蔭官)으로 동원하게끔 하였다.⁹⁶⁾ 또 대왕대비의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의 제기(祭

92) 甲賀宜政, 앞의 논문,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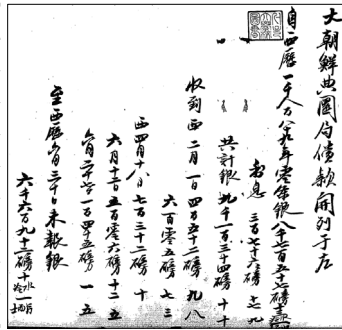
93) 京城府, 앞의 책(1936), 1012쪽.

94) 서울대학교 奎章閣,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續集-史部 4』(서울대학교 奎章閣, 1997), 377-378쪽에서는 8,757여 파운드의 잔액이 1889년 '초'의 것이라고 해설하였다.

95) 李碩崙, 앞의 책, 238쪽, 243쪽.

표15-전환국의 영국 차관 상환 상황

	파운드(磅)	실링(水令)	펜스(片面士)
1889년의 잔액	8,757	13	1
이자	376	17	9
합계	9,134	10	10
상환	2월 1일	452	9
		605	7
	4월 18일	732	10
	6월 12일	506	12
	6월 27일	145	1
6월 30일 현재 잔액	6,692	10	1



주: 모든 날짜는 서력(西曆)임.

출처: 『전환국상환』.

器)를 주성(鑄成)하는 데에도 전환국의 물력을 동원하였다. 그 내역은 척동(尺銅) 1,162근(斤), 숙동(熟銅) 68근 12냥, 유랍(鑰鐵) 473근 12냥 등이었으며, 이 세 가지를 전환국에서 획래(劃來)하는 것에서 옮겨 와 쓰고 회감(會減)한다 하였다.⁹⁷⁾ 이로 미루어볼 때, 전환국에는 정부의 주전소 역할과 동시에 왕실에 현품 조달 및 무역 제공까지 담당해야 하는 일종의 공상어문(供上衙門)으로서의 기능이 강제되고 있었다. 외관 및 그 속에 비치된 기계는 근대적인 것이었지만, 운영의 실상은 전근대적 연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수 있는 자료는 설립 초기의 전환국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의 경제문고에 소장된 『전환국하기책(典圖局下記冊)』이다.⁹⁸⁾ 『전환국하기책』은 1891년 3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이루어진 전환국의 지출을 기록한 장부로서, 주로 건물 및 기계의 보수와 개선을 위한 비용을 기재한 것이다.⁹⁹⁾

속표지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1891년(辛卯) 3월 10일부터 8월 30일까

96)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 1890년 8월 3일.

97)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98) 『典圖局文書』(경332.4951 T128j 1891).

99) 지출만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지출을 가능하게 한 수입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3월 10일자 기록을 통해 두 가지 경로로 자금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최진화(崔鎭華)가 납부한 3,829냥 1전 5푼이고, 다른 하나는 노간(爐間)을 방매(放賣)한 대가인 4,000냥으로서 도합 7,829냥 1전 5푼이었다. 현재로서는 최진화가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면허세금'을 거두어 상당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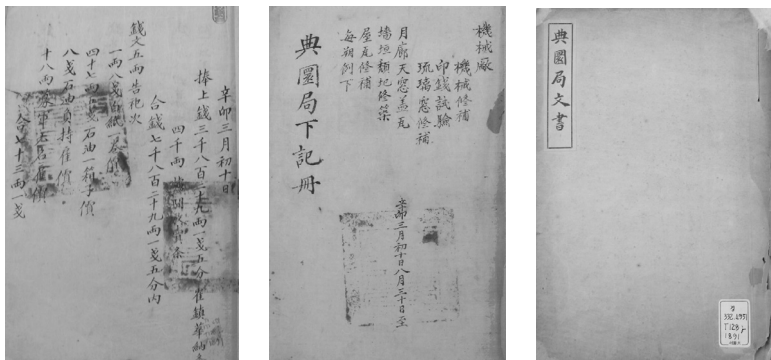


그림2-『전환국하기책』의 표지와 내용

지 기계창(機械廠)의 기계(機械) 수보(修補), 인전(印錢)의 시험(試驗), 유리창(琉璃窓)의 수보, 월랑(月廊) 천창(天窓)의 개와(盖瓦), 장원(塲垣) 퇴비(頹圮)의 수축(修築), 옥와(屋瓦)의 수보 등을 위해 매월 예하(例下)한 내역을 적은 장부이다.¹⁰⁰⁾

『전환국하기책』의 지출 내역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여러 일꾼에게 지급한 일당(日當)이었다. 일당의 지급 명세는 고가(雇價)·공역(工役)·식가(食價) 등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러한 일당을 지급받은 일꾼으로는 모군(募軍)·제초모군(除草募軍)·야장(冶匠)·대장(大匠)·조력(助力)·취야(吹冶)·줄장(漚匠)·급수군(汲水軍)·창내장색(廠內匠色)·백토군(白土軍)·이장(泥匠)·개와장(盖瓦匠)¹⁰¹⁾ 등이 있었다.¹⁰²⁾ 그리고 종이, 목재, 연료 등 공사에 소요된 물품이 소소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¹⁰³⁾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5월과

100) 맨 뒤에 당상(堂上)과 감동(監董)의 서압(署押)이 보인다. 감동의 성은 김(金)이었다.
 101) 전환국의 건물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와장이 등장하고 개와장에 게 지급한 초혜가(草鞋價)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는 천창(天窓)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기와가 얹어져 있었다.
 102) 비록 몇 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대한 소수의 관측값이지만, 이들의 일당을 통해 스킬 프리미엄이나 임금의 추세도 확인할 수 있다.
 103) 각종 실비의 제작이나 수리에 대한 정보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입수통(入水桶)을 제작하는 과정에 용수철(龍鬚鐵)과 땀납(汗音鐵)이 들어갔음이 확인된다. 또 담통(擔桶)과 소통(小桶)의 개조(改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기계창의 창쌍(窓隻)에 쓰기 위해 유리(琉璃) 61장을 잘라서(刀鍊) 끼워 맞춘(朴排)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관방(官房)에는 요강(漚江)과 자물쇠(鎖金)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수리도 이루어졌다. 1891년 8월 9일자로 관방의 요강 1좌(坐)를 땀질하는 공역으로 4전이, 같은 날 관방의 자물쇠 1부(部)를 고치는 데 1냥이 지출되었다.

6월의 기록에 안 방관(安幫辦)과 장 위원(張委負)이 등장한다.¹⁰⁴⁾ 안 방관은 당시의 방관 안경수(安卿壽)를 가리키는데, 표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경수가 전환국의 방관으로 임명된 것이 1890년 10월이었기 때문이다. 장 위원은 표10에 등장하는 위원 장사훈(張思勳)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1891년 9월 30일에 “거조(舉措)가 해망(駭妄)하다”는 이유로 장사훈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拿處)하였다.¹⁰⁵⁾

아무튼 위와 같이 인부의 일당이나 수리 비용 또는 감독 관련 부대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것은 『전환국하기책』의 특성에 맞는 임시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에 도감(都監)이나 청(廳)과 같은 권설(權設) 기관을 만들어 비용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환국하기책』에는 그 외에도 일종의 ‘일반회계’ 성격을 띠는 지출이 뒤섞여 있었다.¹⁰⁶⁾

우선 매월 초에 고정적으로 지출된 내역 중에서 고사(告祀)와 조보채(朝報債)가 확인된다. 고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동문을 개문할 때¹⁰⁷⁾와 같이 필요시에 추가로 하기도 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매달 원역(員役) 1인당 14냥씩이 지급되었다. 원역의 인원수가 25명이었으므로 그리 적지 않은 돈이었다. 또한 공사가 끝나는 것은 8월 말이지만 각 처소에 시유(柴油)의 공급이 시작된 것은 7월 초부터였고, 공사가 끝난 후인 9월과 10월 초에 각 처소 명목으로 등유(燈油)나 시목(柴木)을 구입한 내역도 확인된다.¹⁰⁸⁾ 이는 공사가 끝나고 해당 처소에서 실제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였던 상황을 보여준다. 각 처소에 대한 예산 집행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초기에 배정된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약 330여 냥을 2개월로 나누어 집행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인 9월과 10월의 기록에서 전환국의 조폐(造

104) 이들을 위해 조석지공(朝夕支供)이나 점심(點心) 명목의 비용을 지출한 내역에서 확인된다.

105) 『일성록』 1891년 9월 30일.

106) 『전환국하기책』으로부터 근대적 회계로서의 특성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관청의 하기책(下記冊)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당시의 전환국을 ‘기업’의 일종으로 보기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107) 1891년 6월 2일자 지출 내역 중에서 “동문개문시고사차(東門開門時告祀次)” 명목의 5전이 보인다.

108) 각 처소(各處所)를 비롯하여 기계창(機械廠), 관방(官房), 서리방(書吏房), 사령군사방(使令軍士房), 통령방(統領房) 등이 보인다.

幣) 상황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조폐를 위해 공사를 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속표지에는 “인전 시험(印錢試驗)”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4-5월에 일시적으로 야장과 창내장색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렵다.¹⁰⁹⁾ 전체 지출 내역 중에서 조폐와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은 출장(斐匠)의 존재, 또는 1891년 8월 13일에 본전(本錢) 400냥을 갈아서 광내는(磨光) 공역으로 30냥을 지출한 부분이 있는 정도이다. 전환국에서 이렇게 공사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듬해에 인천으로 기계를 옮겨갔으니, 그 명시적·암묵적 비용은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아야겠다.

VII. 맺음말

정부의 또 다른 조치는 수도에 조폐국(造幣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외국 노동자들이 이를 건설해야 했는데 임금이 비쌌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두 명의 전문가가 기계 설비의 설치를 감독하기 위해 고용되었다. 공사의 마지막 단계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기계의 몇몇 부분은 가장 우수한 부품이어서 유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라고 한다. 이 기계 설비는 2년 이상 걸려 지금은 완공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이 공장을 유일하게 사용한 것은, 왕에게 그 공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의 견본 주화에 구멍을 낸 것이었다. 이 공장을 건설하는 데 2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구식 조폐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온 나라가 사용할 주화를 지루하고도 느리게 제조하며 때로는 밤낮으로 공장을 가동한다.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든 기계 설비는 점차 녹슬고 있으며 곧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의 결여가, 조선 정부로 하여금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게 만들었다.¹¹⁰⁾

이 인용문에서 서양인 선교사 길모어가 묘사하는 조폐국은 다름 아닌 ‘경성전환국’이다. 그가 남긴 한 단락 분량의 서술이 당시의 전환국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될 듯하다. 조선을 방문한 지

109) 주조방식의 차이와 그에 따른 인원 투입의 차이에 대해 명쾌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10) G. W. 길모어 저, 신복룡 역, 『서울 풍물지』(집문당, 1999), 35-36쪽.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의 눈에도 이상하게 비친 비효율과 낭비를 저지를 만큼 당시의 조선 정부와 임금 고종에게 여유가 있었던 것일까? 1880년대 조선에서 근대 공업, 또는 관영공장 운영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물질적 여건 때문에 결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적어도 1880년대까지는 전환국을 ‘기업’이라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전환국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책임자 및 실무자 등 많은 인원이 임명되고 운영되었지만, 그것이 개점휴업 상태의 건물이나 방치된 기계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오전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주전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위한 기구였던 것이다. 따라서 설립 초기의 전환국은 근대적 공장(工場)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관서의 하나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찌면 ‘국(局)’이라는 명칭 속에 해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식산홍업과’는 무관한 정부의 화폐발행 정책이 빚은 혼선의 결과가 바로 이 시기의 전환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천으로 이전한 이후의 전환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를 기다려볼 차례이다.

참 고 문 헌

-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龍洞宮膳錄』.
『日省錄』.
『典園局文書』(경332.4951 T128j 1891).
『典園局償款』(奎 26589).
『典園局職制』(장서각 S08 07 201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漢城旬報』.
- 국사편찬위원회 편, 『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2006.
金允禧, 『대한제국기 서울지역 금융시장의 변동과 상업발전 -대한천일은행 및 대자본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2.
서울대학교 奎章閣,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續集-史部 4』. 서울대학교 奎章閣, 1997.
石川亮太, 「開港期 中國人商人의 活動과 情報媒體: 同順泰書簡資料를 중심으로」. 『奎章閣』 33호, 2008, 183-209쪽.
吳斗煥, 『韓國近代貨幣史』. 韓國研究院, 1991.
元裕漢, 「「當五錢」攷」, 『歷史學報』 35·36, 1967, 313-339쪽.
_____, 「「典園局」攷」. 『歷史學報』 37호, 1968, 49-100쪽.
柳子厚, 『朝鮮貨幣考』. 京城: 學藝社, 1940.
尹錫範·洪性讚·禹大亨·金東昱, 『韓國近代金融史研究』. 世經社, 1996.
李碩崙, 『우리나라 貨幣金融史: 1910년 이전』. 博英社, 1994.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2007.
李榮薰, 「大韓帝國期 皇室財政의 기초와 성격」. 『경제사학』 51호, 2011, 3-29쪽.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 도서출판 해남, 2005.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 산하, 2004.
金遇容, 「19世紀末-20世紀初 韓人 會社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_____, 『韓國企業家史』(重版). 博英社, 1973(1983).
G. W. 길모어 저, 신복룡 역, 『서울 풍물지』. 집문당, 1999.
崔虎鎮, 『韓國貨幣小史』. 瑞文堂, 1972.

甲賀宜政, 「近世朝鮮貨幣及典園局の沿革」. 『朝鮮總督府月報』 4권 12호, 1914, 9-38쪽.

京城府, 『京城府史』 第1卷. 京城: 京城府, 1934.

——, 『京城府史』 第2卷. 京城: 京城府, 1936.

高鳴雅明,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研究』. 東京: 大原新生社, 1978.

金洗鎭, 「李朝末期における朝鮮の貨幣問題」. 『普專學會論集』 1호, 1934, 283-348쪽.

三上豊, 『典園局回顧談』. 京城: 朝鮮經濟研究所座談會, 1932.

국 문 요 약

전환국은 근대 초기의 공기업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환국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의 이해는 100년 전에 일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주로 의존하는 수준이었다. 이 글에서는 각종 관찬자료 및 전환국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설립 초기 전환국의 운영 실태에 입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전환국의 조직 구성은 전국적인 당오전 구조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신식(압인식) 화폐의 구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전환국의 신축 후에는 기계를 도입하였으나, 신식 화폐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기계를 들여놓은 조폐창(또는 기기창)은 신식 화폐의 일시적인 시주에만 활용되었을 뿐 개점휴업 상태였고, 경외의 여러 곳에서 구래의 당오전 구조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환국의 조직은 기계의 구매 대금을 상환하거나 왕실 의례에 인적·물적 지원을 행하거나, 기기창의 수리와 개선을 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조폐라는 기관 설립의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전환국의 운영이 정부의 화폐정책이 빚은 혼선의 결과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인천으로 옮겨 가고 나서 신식 화폐의 본격적 구조가 개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설립 초기의 전환국을 ‘근대적인 회사, 기업, 공기업, 또는 공장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대의 외국인이 남긴 회고담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투고일 2013. 12. 20.

심사일 2014. 2. 7.

게재 확정일 2014. 3. 6.

주제어(keyword) 전환국(Mint Bureau),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 근대성(modernity), 공장(factory)

Empirically Rethinking the Emergence of State-owned Enterprise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Early Stage of the Mint Bureau, *Chŏnhwan'guk*

Cho, Young-jun

The Mint Bureau, *Chŏnhwan'guk*, has been widely known as on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during early modern Korea. The present knowledge about the bureau is very limited because most literature depended on studying documents written by the Japanese one hundred years ago.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bureau by analyzing official records, such as chronicles and account books. The Mint Bureau concentrated on managing the casting of traditional copper coins, instead of minting new currency. While new buildings were constructed to accommodate the minting machinery, no other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these infrastructures. Only one case of testing was done with the use of the heavy equipment in the building, as the minting of old coins was conducted elsewhere. The Mint Bureau was organized to repay the cost of the machinery, to assist in the royal rituals, and to reconstruct the factory. However, these activities were far from the initial purpose of the institution. The short history of the Mint Bureau developed simultaneously with the monetary policy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is study, the Mint Bureau cannot be described as a “modern” company, enterprise, or factory.